

正祖의 當代 臣僚 文集 命刊에 대한 연구

- 『雷淵集』, 『江漢集』, 『保晚齋集』, 『樊巖集』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King Jeongjo's Publishing His Official's Collections of Work
- Especially on *Noeyeonjip*, *Ganghanjip*, *Bomanjaejip* and *Beonamjip* -

양 기 정 (Yang, Gi-Je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사례 분석 |
| 2. 정조가 명간한 문집의 사례 | 3.1 命刊의 배경 분석 |
| 2.1 南有容의 『雷淵集』 | 3.2 命刊의 경과 분석 |
| 2.2 黃景源의 『江漢集』 | 4. 결 론 |
| 2.3 徐命膺의 『保晚齋集』 | <참고문헌> |
| 2.4 蔡濟恭의 『樊巖集』 |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 正祖 시대 신료인 南有容의 『雷淵集』, 黃景源의 『江漢集』, 徐命膺의 『保晚齋集』, 蔡濟恭의 『樊巖集』에 대해 정조가 간행을 명한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정조는 賓客을 지내고 文衡을 역임하였으며 문장과 학술이 뛰어나거나, 자신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대한 공적을 세운 신료의 문집을 간행해주도록 명을 내렸다. 정조가 빈객을 지내고 문형을 역임한 신료의 문집을 간행해주도록 명한 전통은 남유용의 『뇌연집』에서부터 시작되어 황경원의 『강한집』, 서명응의 『보만재집』으로 이어졌다.

남유용과 황경원의 문장은 敦厚하고 古雅하여 정조의 '文體反正'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서명응은 다양한 서적을 편찬했던 정조의 학술 정책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체제공은 思悼世子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정조의 신임을 얻고 영의정에 올라 정조가 추진하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보좌하였다.

『뇌연집』과 『강한집』은 간행의 명이 내린 뒤에 간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편집과 교정에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모두 정조 사후에 저자의 후손이나 본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하다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간행되었다.

『뇌연집』과 『강한집』은 저자의 사후에 정조가 遺稿를 乙覽하고 간행하도록 명한 경우이고,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저자의 생전에 詩文稿를 올랐던 뒤에 御製詩를 내리고 사후에 간행해주도록 명한 경우이다. 攄淸文字가 다수 수록된 『강한집』은 중국에 유입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御製序가 수록되지 않았다.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정조 생전에 간행되지 못한 까닭에 御製序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御製詩만 수록되어 있다.

『뇌연집』의 사례를 볼 때, 국가에서 문집을 간행해 줄 때에 私件은 본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그 수량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50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公件의 수량은 『강한집』을 인출할 때

*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ykj@itkc.or.kr)

접수일: 2016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정조가 내린 備忘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강한집』의 公文은 총 23件이 인출되었다.

要語: 正祖, 命刊, 乙覽, 南有容, 雷淵集, 黃景源, 江漢集, 徐命膺, 保晚齋集, 蔡濟恭, 樊巖集, 出版, 刊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King Jeongjo's publishing his official's collections of work, especially on Nam Yu-Yong's *Noeyeonjip*, Hwang Gyeong-Won's *Ganghanjip*, Seo Myeong-Eung's *Bomanjaejip* and Chae Jae-Gong's *Beonamjip*, all of which were ordered to be published by King Jeongjo.

All of them had taught Jeongjo as a royal tutor while Jeongjo was a prince. Three of them had represented national literature as the Head of the Royal Academy. One of them had help Jeongj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tate affairs as a prime minister. The tradition that officially publish one's collections of work, who served as a royal tutor and the Head of the Royal Academy, was derived from Nam Yu-Yong's *Noeyeonjip*, and was passed down to Hwang Gyeong-Won's *Ganghanjip* and Seo Myeong-Eung's *Bomanjaejip*.

Works of Nam Yu-Yong and Hwang Gyeong-Won were so elegant and sincere that there was a lot of accord with Jeongjo's policy trying to restore people's style of writing fallen into decadence. Seo Myeong-Eung immensely helped Jeongjo with his academic talent when Jeongjo compiled and published various books so as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of the throne at the initiatory stage of Guyjanggak. Jeongjo was so impressed by Chae Jae-Gong's consistent protection for Prince Sado, who was Jeongjo's father, that he especially selected Chae Jae-Gong as a prime minister. Chae Jae-Gong successfully assisted Jeongjo's policy in various categories.

It took about 3years for *Noeyeonjip* and *Ganghanjip* to be published from Jeongjo' order. On the contrary, *Bomanjaejip* and *Beonamjip* were privately published after Jeongjo passed away. The publication of *Bomanjaejip* and *Beonamjip* took a long time due to the political obstacles that occurred shortly after Jeongjo passed away.

In case of *Noeyeonjip* and *Ganghanjip*, Jeongjo read both of them and ordered to publish after the writers passed away. *Bomanjaejip* and *Beonamjip*, on the other hand, were read and given a panegyric poem by Jeongjo during writer's life time. Jeongjo ordered to publish *Bomanjaejip* and *Beonamjip* as soon as the writers passed away. *Ganghanjip* had a lot of content that were strongly opposing Qing. Jeongjo was concerned that *Ganghanjip* might have bring about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Joseon and Qing, so he did not write prefaces for *Ganghanjip*. Since *Bomanjaejip* and *Beonamjip* could not be published during Joseon's life time, there are no Jeongjo's prefaces, only panegyric poems written by Jeongjo.

Nam Yu-Yong's descendants wanted to print only 40-50 sets for private use at the time of printing *Noeyeonjip*, because they were not afford enough. On that basis, it can be assumed that more than 50 sets for private use were generally printed at least when a collection of work was published under the orders of K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Jeongjo's memorandum, 23 sets for official use were generally printed at the time of printing *Ganghanjip*. It can also assume how many sets of collection of work for official use were generally printed.

Key words: Jeongjo(正祖), king's order to publish(命刊), king's reading(乙覽), Nam Yu-Yong(南有容), *Noeyeonjip*(雷淵集), Hwang Gyeong-Won(黃景源), *Ganghanjip*(江漢集), Seo Myeong-Eung(徐命膺), *Bomanjaejip*(保晚齋集), Chae Jae-Gong(蔡濟恭), *Beonamjip*(樊巖集), publication

1. 서론

조선 초기의 成宗은 世宗의 찬란한 업적을 계승하여 右文 정책을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신하의 문집을 乙覽하고 命刊하는 전례를 세운 바 있다.¹⁾ 영조의 업적을 계승한 정조는 성종에 비견될 만한 好學의 군주로서 많은 신료들의 문집을 을람하고 간행하였다. 정조에 의해 명간된 문집 가운데 『群書標記』에 저록된 것으로는 梁誠之의 『訥齋集』과 朴闇의 『增訂挹翠軒集』, 李舜臣의 『李忠武公 全書』가 있고, 『群書標記』에 저록되어 있지 않지만 『實錄』과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에 명간의 기록이 나타나는 문집으로는 南有容의 『雷淵集』, 黃景源의 『江漢集』, 徐有榘의 『保晚齋集』, 鄭道傳의 『三峰集』, 趙文命의 『鶴巖集』, 朴祥의 『訥齋集』, 車天輅의 『五山集』, 洪樂仁의 『安窩遺稿』, 洪鳳漢의 『翼靖公遺集』, 蔡濟恭의 『樊巖集』 등이 있다.

이 가운데 梁誠之의 『訥齋集』, 朴闇의 『增訂挹翠軒集』, 李舜臣의 『李忠武公 全書』, 鄭道傳의 『三峰集』, 朴祥의 『訥齋集』, 車天輅의 『五山集』은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시기의 經世家와 文章家, 忠臣의 문집으로서, 정조로부터 문장이 질박하면서도 실용적이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문집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문이 산출되었는데, 경박해진 文士들의 문장을 순정하게 되돌리고 인륜강상의 도리를 고취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논지이다.²⁾

1) 신승운, “成完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집(1995), 301-390.

2) 강혜선, “正祖의 문예진흥과 시문선집의 편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집(1999), 411-432.

이종득, “梁誠之의 서적 정책과 『訥齋集』의 간행 경위,” 『한국문학논총』 26집(2000. 6), 281-305.

강혜선, “正祖의 詩文集 編纂樣相 研究,” 『장서각』 3집(2000. 7), 113-137.

오용섭, “『三峰集』의 간행과 편성,” 『서지학연구』 48집(2011. 6), 229-253.

심경호, “조선 문집 간행의 경위와 편찬 체제에 관한 일고찰: 鄭道傳 『三峯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2집(2014. 2), 119-152.

백승호, “正祖의 臣僚 文集 간행과 그 정치적 의미: 『挹翠軒遺稿』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이상과 같이 정조가 명간한 정조 이전 시대의 인물의 문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조가 명간한 당대 신료의 문집 가운데 한두 종에 대한 개별적인 간행 경과를 살핀 논문은 있었으나,³⁾ 정조가 명간한 당대의 신료 문집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조가 어떠한 신료들의 문집에 대해 간행을 명하였고, 그 간행의 경과는 어떠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南有容의 『雷淵集』, 黃景源의 『江漢集』, 徐有渠의 『保晚齋集』, 蔡濟恭의 『樊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2. 정조가 명간한 문집의 사례

2.1 南有容의 『雷淵集』

남유용(1698-1773)은 자가 德哉, 호가 雷淵, 시호는 文淸이고, 본관은 宜寧이다. 1740년(영조 16)에 문과에 합격하여 1758년(영조 34)에 文衡을 역임하였으며,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정조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754년(영조 30) 정조가 世孫일 때에 輔養官으로 발탁되고, 1757년(영조 33)에 元孫師傅가 되면서이다. 그는 어린 정조를 무릎에 앉혀 놓고 『孝經』, 『小學』 등의 책을 가르쳤는데, 정조는 훗날 자신이 학문의 방향을 알게 된 것이 모두 남유용의 공로라고 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⁵⁾

43집(2014. 6), 117-145.

3) 임노직, “『樊巖集』 판각 경위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사상의 재조명』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2), 503-531.

김문식, “『樊巖集』 간행의 경과,” 『문헌과 해석』 26호(2004. 3), 181-194.

한민섭, “徐命膺의 『保晚齋四集』의 편찬과정과 특징,” 『한국실학연구』 17호(2009), 83-131.

4) 趙文命, 洪鳳漢, 洪樂仁의 문집은 모두 外戚의 문집으로서, 일반 신료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하지 않았다.

5) 正祖, 『雷淵集序』, 『弘齋全書』 권8, 한국문집총간 262집, 129면.

“予生三歲，皇祖選於群臣，以南公有容爲輔養官，使授以書。不出是歲，而授孝經以及小學，非予之敏，教之勤也。公每具公服，入講席，置予膝上，口授指畫，譬曉音義，語懇懇不

문장에 있어서 그는 古文을 잘 계승한 문인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門人인 俞漢雋은 雷淵의 문장을 평하여 三經에 근거를 두어 敦厚하고 典雅하고 精微하였으며, 實質을 숭상하고 虛飾을 배척하여 근거 없는 글을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⁶⁾ 이러한 남유용의 문장은 혼후하고 질박한 古文을 좋아하고 장려한 정조의 취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館閣文字에 있어서는 金宗直이나 徐居正과 같은 조선 전기의 大家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張維와 李植을 계승하여 作者의 軌轍을 얻었다고 하면서 옛 법도를 본받은 근래의 작가로서 남유용과 黃景源을 꼽기도 하였다.⁷⁾

정조는 즉위 2년(1778) 9월에 남유용의 遺稿⁸⁾를 乙覽한 뒤에, 당시 막 성인이 된 남유용의 아들 南公輓을 불러보고, 그 자리에서 校書館으로 하여금 문집을 간행해주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무슨 연고가 있었던지 1년 동안 간행되지 않고 있다가, 1779년 8월에 內閣으로 하여금 문집을 인출토록 하라는 명이 재차 내렸고, 諡號를 내리라는 명도 함께 내렸다. 문집을 간행하라는 명이 두 차례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간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은 간행을 위한 원고가 미처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780년 年末에 문인 俞漢雋이 동문인 金純澤에게 답한 편지에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보인다.

문집이 한창 교정 중이니, 교정을 마치면 板刻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초여름에 奉化丈(남유용의 동생인 南有定을 가리킴)이 필사한 고본을 가지고 再校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현재 조정이 시급하게 여기는 일로서 사가의 일이 아니니, 교정하는 일을 어찌 감히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⁹⁾

倦, 其時事尙依係可憶也。”

- 6) 俞漢雋, 『太學士雷淵南公實記』, 『自著』續集 冊1, 한국문집총간 249집, 586면.
“公之爲文章, 立志高取材博, 潔淨精微自於易, 敦厚溫柔出於詩, 典則渾雅得於書. 自經以下, 莊騷以蹈厲之, 秦漢以氣力之, 韓歐以規矩之. 慎其術, 不驚於雜; 正其道, 不入於諛. 先理質而後藻華; 進本實而退虛浮.”
- 7) 正祖, 『日得錄』, 『弘齋全書』 권165, 한국문집총간 267집, 233면.
“我國文章, 自張維李植始得作者軌轍, 至于近世南有容黃景源而全用力於效古. 非不彬郁可觀, 而鍊琢磨之過者, 終少樸厚敦大之氣. 比諸金宗直徐居正諸人, 或讓與一步, 非特世級之高下.”
- 8) 남유용은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自編하여 동생 南有定(1722-1775), 조카 南公弼(1715-1763), 張道純 등에게 繕寫하도록 하고, 門人 李敏輔에게 刪削하도록 하였다.
- 9) 俞漢雋, 『答雪窓金公書庚子』, 『自著』 권20, 한국문집총간 249집, 338면.

간행의 왕명이 내린 이후로 간행을 위한 원고를 완성하기 위해 문인과 자제들이 교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왕명에 따라 간행을 서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81년 9월에 정조가 규장각 직제학 沈念祖에게 『뇌연집』과 『敦孝錄』¹⁰⁾의 校正 진척 상황을 묻자, 심염조는 교정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조가 『뇌연집』을 먼저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심염조가 『國朝寶鑑』의 간역이 끝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에 『뇌연집』 원고의 교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국조보감』의 편찬이 바야흐로 시작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여타 서적을 간행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뇌연집』의 印役이 착수된 것은 1783년 2월에 이르러서이다. 1782년에는 교정이 완료된 원고가 이미 규장각에 입고되어 간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조는 『뇌연집』의 序文을 직접 지어줄 것이니 御製序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규장각에 원고를 잘 보관하고 내주지 말도록 당부하였다.¹¹⁾ 이 일이 있던 얼마 뒤에 어제서가 규장각에 내렸다. 그 서문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금 공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사람을 볼 수 없기에 그 집에 있던 유고를 들여오게 하여 시문 몇 편을 읽어 보았다. 문체가 온순하고 기상이 순정하며, 법도는 바르면서도 화락하였다. 議論은 항상 經典에 의거하여 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부드러우면서 화평한 정취가 있으되 교묘하면서도 화려한 말은 없었다. 그 책을 읽고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는데, 참으로 불후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하지만 그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간행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에 校書館에 맡겨 간행해 주도록 하였다. 아, 이렇게 해도 어찌 그의 공을 충분히 갚을 수 있겠는가. 부족하나마 내가 옛날 그에게 배웠던 일을 잊지 않았음을 기록하는 바이다.¹²⁾

10) 『敦孝錄』은 남유용의 후임으로 世孫輔養官이 되어 정조를 가르쳤던 朴聖源(1697-1767)이 지은 책으로, 經史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서 孝에 관한 교훈과 고사를 뽑아 엮은 것이다.

11) 『承政院日記』 정조 6년 3월 26일.

上曰：“雷淵集下于內閣，閣臣其果閱覽乎？” 志儉曰：“雖未盡見，而略綽看過矣。” 上曰：“其文爲一代之最，而此人，自予三歲時，爲保養官，一歲中，授孝經及小學，其後受學，至於六七年之久，以此欲令芸閣，刊行其集矣。” 志儉曰：“其文淳雅，足爲一代宗匠，果如聖教矣。” 上曰：“南奉朝賀，遞保養官後，朴聖源代其職，予之所得，多賴此二人之力矣。雷淵集序文，欲製下，原集姑置內閣，勿爲出給，可也。” 志儉曰：“若下御製序文，則尙爲曠世之榮光矣。”

12) 正祖, 『雷淵集序』, 『弘齋全書』 권8, 한국문집총간 262면, 129면.

1783년 2월에 『국조보감』의 간역이 완료되자 정조는 校書館으로 하여금 『뇌연집』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이 완료된 뒤에는 남유용의 본가에 문집을 頒賜하면서 致祭하도록 지시를 내렸다.¹³⁾

1783년(정조 7) 3월 8일에 정조는 각신 徐鼎修에게 印役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서정수는 인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뒤에, 어제 서문의 글씨를 누가 써야 할지 품의하였다. 이에 정조는 海伯이 쓰도록 지시하였다. 지금 전하고 있는 『뇌연집』의 卷首에 실린 어제서의 글씨는 당시 황해도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沈念祖의 글씨이다. 그리고 정조는 『뇌연집』의 배포에 관심을 보이면서 본가에서 인출하려고 하는 수량을 물었다. 서정수는 본가가 매우 가난해서 널리 배포할 가망이 없다고 대답하였다.¹⁴⁾ 5월 19일에는 정조가 서정수에게 『뇌연집』의 인역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자, 서정수가 5월 말 쯤 끝날 듯하다고 대답하였다. 정조가 다시 본가에서 사적으로 찍어가는 私件의 수량을 묻자, 서정수는 불과 40, 50건 정도라고 대답하였다.¹⁵⁾

5월 24일 교서관에서 『뇌연집』이 완간되어 규장각을 통해 정조에게 올려졌다. 정조는 각신을 본가에 보내 문집을 頒賜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사당에 제사하고, 제사를 지낼 때 『뇌연집』의 어제서도 읽도록 명하였다.¹⁶⁾ 본가에 문집을 전달하

13) 『承政院日記』 정조 7년 2월 15일.

傳于林錫喆曰：“南奉朝賀文集，纔命校正，御製序文，昨年亦已親撰以下矣。今則外閣寶鑑印役告成，奉朝賀文集，從近印出事，分付。畢役後，當頒給本家，仍爲致祭，以此分付。朴諭善所撰敦孝錄，亦以印頒之意，已有下教，此亦鱗次舉行，亦令外閣知悉。”

14) 『承政院日記』 정조 7년 3월 8일.

上曰：“南有容文集初本，予始見之，其五言古詩，詞絕可誦，其行文亦極恬雅矣。印役果以何日爲始乎？”鼎修曰：“已始役矣。御製序文，誰可奉書乎？”上曰：“海伯好矣。此文集，不可不廣布，未知本家欲印幾件乎？”鼎修曰：“聞其本家貧甚，實無廣布之望云矣。”

15) 『承政院日記』 정조 7년 5월 19일.

上曰：“雷淵集印役，何當告訖？”鼎修曰：“今月晦間，可以完役矣。”上曰：“私件爲幾何？”鼎修曰：“不過四五十件云矣。雷淵集畢役後，又有繼印之役，而本家未及考準云，故今姑中止矣。”上曰：“然則隨其送來，始役無妨矣。”

16) 『正祖實錄』 7년 5월 24일.

“奎章閣印進《雷淵集》。上御製弁其首，遣閣臣賁傳其家。且親綴祭文，致侑于有容祠，命閣臣宣讀序文于致祭時。”

고 치제하는 절차가 마무리 되자, 監役 각신인 서정수에게 鹿皮 1승을 하사하고 外閣官人 成大中에게는 筒箇 1부와 苧布 1필을 하사하여 노고를 치하하였다.¹⁷⁾

1783년 5월에 교서관에서 韓構字¹⁸⁾로 인행된 『뇌연집』은 권수에 正祖가 1782년에 지은 御製序가 沈念祖의 글씨로 실려 있고 “奎章之寶”가 판각되어 있다. 분량은 30권 15책이다. 그 서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1783년간 『뇌연집』의 서지 사항

板種	活字本(韓構字)
卷冊	30卷 15冊
行字	10行 20字
半郭	21.5×14.9(cm)
魚尾	上二葉花紋魚尾

2.2 黃景源의 『江漢集』

황경원(1709-1787)은 자가 大卿, 호는 江漢遺老, 시호가 文景, 본관은 장수이다. 1740년(영조 1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766년(영조 42) 대제학에 제수되고 世孫右副賓客이 되어 세손이던 정조를 가르쳤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규장각을 세우자, 李福源과 함께 초대 규장각 提學에 제수되었다. 禮書에 정통하였으며, 古文을 잘 지어 吳瑗, 李天輔, 南有容 등과 함께 文壇을 이끌었다. 평생 春秋大義를 자임하여 張廷玉이 지은 『明史』에 弘光 이하 명나라 세 황제의 帝統이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南明書』를 지었으며, 명나라 毅宗 이후로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의 傳記인 『明朝陪臣傳』을 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大明義理 정신은 尊周大義를 중요시하던 정조의 사상과 부합하는 것이었

17) 『內閣日曆』 정조 7년 6월 1일.

18) 韓構字는 본래 金錫胄가 숙종 초 무렵에 당대의 명필인 韓構의 글씨를 字本으로 삼아 만든 銅活字이다. 이후에 官에 소속되었는데, 1782년(정조 6)에 평안도 관찰사 徐浩修가 왕명을 받아 再鑄하였다. 이것이 제주 한구자로서, 이 활자로 초인된 서적이 『뇌연집』으로 추정된다(천혜봉,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 2012), 222-230).

다. 정조가 그에게 『宋史笏』의 편찬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도 이러한 역사의식 때문이었다.¹⁹⁾

문장에 있어서 그는 남유용과 더불어 당대에 당송고문을 잘 계승한 문인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 둘은 모두 정조의 세손 시절에 빈객을 역임하여 정조의 문학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조는 당시 청나라에서 유입된 明末清初의 문집과 稗官雜記를 통해 속된 문장이 유행하는 것을 世道가 타락하는 원인으로 보고 이를 唐宋古文과 朱子の 전아한 문장으로 되돌려 세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文體反正’으로, 남유용과 황경원 두 사람의 돈후하고 순정한 문체는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

1787년 2월 25일 황경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을 들은 정조는 빈객으로서 자신을 지도해준 은혜와 뛰어난 문장을 언급하고²⁰⁾ 致祭文을 직접 지어 내렸다.²¹⁾ 이 제문에서 정조는 황경원이 문형과 규장각의 제학을 맡아 古文을 主唱하여 文壇을 이끈 공로를 치하하고 자신과 뜻이 맞았던 신하였음을 재차 표명하였다. 그리고 황경원이 생전에 손수 自編한 遺稿가 남아 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승정원일기』나 『실록』 등에는 정조가 문집 간행을 명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황경원이 세상을 떠난 해 12월에 서명옹이 이어 세상을 떠나자 정조가 “유고를 故 閣臣 黃景源의 예에 의거하여 속히 이행해 주라고 분부하라.”라는 하교를 내렸다는 실을 미루어 볼 때, 황경원이 별세한 직후에 『강한집』을 간행하라는 명이 곧바로 내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뒤로 『강한집』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명간의 명이 내린 이듬해 승정원일기에 보인다. 1788년(정조 12) 8월에 정조가 좌승지 黃昇源에게 『강한집』이 언제쯤

19) 『宋史笏』은 원나라 때 脫脫에 의해 편찬된 宋史의 오류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정조가 命撰한 책으로, 청나라에 대한 反感과 尊周義理가 내포된 책이다.

20) 『正祖實錄』 11년 2월 25일.

“重臣出入冑筵，有甘盤之舊誼，其文章聞一世，予於平日，常所獎誦者。設閣之後，首叨是任，稽古之力，資益孔多。”

21) 正祖, 『提學黃景源致祭文』, 『弘齋全書』 권21, 한국문집총간 262집, 329면.

“大雅云遠，文氣日漓。作者中間，寂矣鼓吹。卿奮厥聲，規彼大匠。體尙邃古，言恥官樣。滔滔江漢，鳴國之盛。爲予賓僚，掌予詞命。奎署英館，卿又其冠。日篤契遇，不寧才難。機變都忘，孤卿自至。白髮寒屋，手勘存笏。蘭刻香歇，蓮榜星廻。太平生老，酌以一杯。”

간행될 수 있는지 묻자, 황승원이 “謄出한 原稿에 오류가 많은데, 아직 미처 考準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정조가 裒輯한 원고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었다. 황승원이 황경원이 생전에 자편한 분량이 15권이라고 대답하자, 정조는 속히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좌승지로 제직하고 있던 황승원은 황경원의 사촌 동생이면서 동시에 문인이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정조가 『강한집』을 간행하라는 명이 내리자 그 집안에서는 황경원이 생전에 15권으로 편차해 둔 유고를 가지고 定稿本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출한 定稿本에 오류가 많아 原本과 고준하느라 인쇄가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다.²²⁾

다음은 그 이듬해인 1789년(정조 13) 5월에 정조가 당시 규장각 제학이던 金鍾秀와 나눈 대화이다.

정조: 『강한집』을 보았는가?

김종수: 며칠 안으로 다 볼 것입니다.

정조: 春秋大義라지만, 지금과 尤庵의 시대는 차이가 있다. 우암의 시대에는 옛날(병자호란 시기)과 시간적으로 멀지 않아 저들(淸나라 사람들)이 비록 忌諱文字를 보더라도 의당 꺾이쩍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문집이 인출된 뒤에 저들에게 유입되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강한집』에서 이러한 내용을 빼버린다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尤庵集』은 별편을 두었는데, 이 문집은 권수가 10권에 불과하고 기휘문자가 거의 全篇에 걸쳐 있어 原集과 別編을 구분하는 일을 논의할 수도 없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김종수: 皇朝(明나라를 가리킴)를 잊지 않는 문자를 설명 저들이 보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정조: 그것이 무방하더라도 걱정스러운 점은 오랑캐들을 배척하는 내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宋子大全』에도 別編이 있는가?

김종수: 卷帙이 거대하여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조: 『강한집』의 편집은 李敏輔가 주관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김종수: 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 重臣(황경원을 가리킴)이 생전에 後嗣가 없었던 까닭에 자신이 손수 정리하고 淨書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합니다.²³⁾

22)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8월 24일.

上曰: “故重臣文集, 何當刊出耶?” 昇源曰: “謄出者多有註誤, 姑未考準矣。” 上曰: “故重臣在於賓客時, 予不無資益之效, 至今未忘矣, 裒集當爲幾編耶?” 昇源曰: “重臣在世時, 皆是釐定者, 而共爲十五卷矣。” 上曰: “從速入梓, 可也。”

『강한집』의 간행을 목전에 두고 김종수에게 『강한집』 원고의 검토를 명한 뒤에 나는 대화로 추정되는데, 『강한집』의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다. 『강한집』의 내용 가운데 청나라를 배척하는 기록이 많아 청나라로 문집이 유입될 경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정조가 염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조는 宋時烈의 문집인 『尤庵集』의 사례를 들어 기휘문자를 따로 別編으로 편간하여 청나라의 눈을 피하는 방법까지 고려하였으나, 『강한집』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그러하였기 때문에 별편으로 편차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강한집』이 실제로 李敏輔의 편집을 거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조가 그런 소문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정조가 『강한집』의 편집과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 달인 1789년(정조 13) 윤5월에는 호조판서 徐有隣이 校書館에서 활자로 방금 찍어낸 『通鑑』을 홍문관의 요청에 따라 인쇄해 지급하도록 요청하자, 정조가 『강한집』과 『보만재집』의 인쇄에 대해 언급하기를 “『강한집』과 『보만재집』은 모두 빈객과 문형을 지냈던 사람들의 문집으로서, 원집을 인출할 때 물력을 도와주라는 명을 이미 내렸다. 본조(戶曹를 가리킴)에서 헤아려서 본가를 도와주고, 내각과 홍문관에는 白紙로 찍어 각 1건씩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²⁴⁾ 『뇌연집』의 경우에는 公件의 인쇄에 대한 종이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私件의 인쇄에 대해서는 남유용의 집안에서 경비를 대어 인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기사를 통해 『강한집』과 『보만재집』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²⁵⁾

23) 『承政院日記』 정조 13년 5월 21일.

24) 『承政院日記』 정조 13년 윤5월 19일.

有隣曰：“卽接弘文館移文，則通鑑，方自芸閣，以鑄字開板，待令件及館上件，磨鍊印送云矣。此是本館不可無之冊子，依移文印送，何如？”上曰：“依爲之。與館官分兒件·白紙件，三件印給，而白綿紙件，三件印出，令本館粧緘以入，江漢集·保晚齋集皆是曾經賓客文衡之人，原集印出，既有助給物力之命，自本曹量助本家，內閣弘文館，白紙各一件印給，可也。”

25) 규장각에 소속된 교서관이 인쇄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인쇄할 서책의 수량과 인쇄에 드는 비용, 배포, 役員에 대한 시상 등은 호조에서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한집』은 1790년(정조 14) 5월에 校書館에서 芸閣活字로 인쇄되었다. 『강한집』의 標題紙에 “庚戌仲夏”, “芸閣活字”라고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인쇄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內閣日曆』에 보이는 정조의 備忘記에는 궁궐과 규장각, 홍문관 및 각 史庫 등에 소장할 公件의 『강한집』 인쇄 수량을 지시한 기록이 있다.²⁶⁾ 이 기록에 따르면, 別冊紙로 인쇄할 것이 3건, 白綿紙²⁷⁾로 인쇄할 것이 5건, 白紙로 인쇄할 것이 15건이다. 인쇄 수량과 각처별 용도로 볼 때 별책지가 가장 고급 종이이고, 그 다음이 백면지와 백지의 차례인 것으로 보인다. 각 소요처 별로 보면 궁중으로 들어올 건[內入]이 총 10건인데, 1건은 御覽用이고 9건은 內賜에 대비한 보관용으로 추정된다. 규장각의 書庫인 西庫에 보관할 것이 3건, 外奎章閣에 보관할 것이 1건, 春秋館에 보관할 것이 1건, 校書館에 보관할 것이 1건, 네 史庫에 보관할 것이 4건이었다.

『강한집』은 御製序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정조가 『뇌연집』을 간행하면서 어제서를 내려주어 卷首에 실린 사례와 정조가 『강한집』의 간행을 명한 뒤에 보인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서문을 지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강한집』에 실린 排淸文字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정조는 『강한집』이 청나라에 전파되어 외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었다. 만약 이러한 문집에 정조의 어제서가 실린다면, 국왕이 인정한 문집이라는 것이 공식화되므로 청나라로 유입될 경우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정조가 명간한 『강한집』의 서지 사항은 <표 2>와 같다.

26) 『內閣日曆』 정조 14년 6월 4일.

“備忘記: 江漢集, 別冊紙一件內入, 二件西庫; 白綿紙一件外奎章閣, 一件西庫, 一件太白山城, 一件五臺山城, 一件赤裳山城; 白紙九件內入, 一件春秋館, 一件本閣, 三件西庫, 一件鼎足山城。”

27) 백면지는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고급 종이의 하나이다. 무명과 같이 희고 매끄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을람용 서적과 국가 중요 서적 등의 인쇄, 중국에 보내는 歲幣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정선영, “백면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집(2008. 12), 427-451).

<표 2> 1790년간 『강한집』의 서지 사항

板種	活字本(芸閣印書體字)
卷冊	32卷 15冊
行字	10行 20字
半郭	22,0×14,5(cm)
魚尾	上白魚尾

2.3 徐命膺의 『保晚齋集』

서명응(1716-1787)은 자가 君受, 호가 恬溪·保晚齋, 시호가 文靖이고, 본관은 達城이다. 1754년(영조 30)에 문과에 합격하여 1771년(영조 47) 文衡에 제수되고, 이어 賓客에 임명되어 세손이던 정조를 가르쳤다. 규장각을 설치되었던 초기에 提學에 임명되어 『奎章總目』, 『國朝寶鑑』, 『奎章閣志』 등을 편찬하여 규장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말년에는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保晚齋’라는 호는 1781년 아들 徐浩修가 규장각 직제학으로 입시했을 때 정조가 서명응에게 내린 호이다. 정조는 서명응이 鄭厚謙이 文苑에 추천해 준 것을 거절하고, 洪國榮이 다시 조정에 나오려던 계획을 저지하였으며, 정조를 보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徐命善을 동생이라는 사실을 열거하고서 바로 이것이 만년에 드러난 서명응의 특별한 절개라고 칭찬하며 ‘보만재’라는 호를 하사하였다.²⁸⁾

그는 문장보다는 經學, 史學, 農學, 天文學, 音韻學, 音樂 등 다방면의 학문에 관심을 가져 博學의 특징을 보인다. 정조가 서명응에게 다양한 서적의 편찬을 맡겼던 것도 이러한 학문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서명응이 정조의 명으로 편찬에 참여했거나 편찬한 책 가운데 『群書標記』에 著錄되어 있는 것으로는 『資治通鑑綱目新編』, 『詩樂和聲』, 『易學啓蒙集箋』, 『朱子會選』, 『奎章韻瑞』, 『南漢志』 등이 있다.

서명응은 평소애 자신이 저술한 詩文을 정리해 두었는데, 정조가 ‘保晚齋’라는

28) 徐命膺, 『自表』, 『保晚齋集』 권12, 한국문집총간 233집, 303면.

호를 하사한 뒤로는 자신의 詩文稿에 ‘保晩齋稿’라는 이름을 붙여 두었다. 1782년(정조 6) 5월에 정조는 봉조하로 있던 서명응에게 ‘保晩齋稿’를 들여오게 하여 을람하였다.²⁹⁾ 그리고 읽고 난 소감을 七言律詩로 지어 하사하였다.³⁰⁾ 이 시에서 정조는 서명응이 ‘周易’과 象數學에 일가견을 지닌 사실과, ‘保晩齋稿’를 을람한 일을 漢武帝가 당대의 大文豪였던 司馬相如의 저술을 찾아오게 하여 보았던 고사에 비견하였다. 시를 지어 하사하는 자리에서 정조는 서명응에게 御製詩를 봉안할 건물을 별도로 지을 것인지 물어보았다. 서명응은 어제를 私室에 봉안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별도의 건물을 지어 봉안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조는 남유용의 『뇌연집』에 대해서는 어제서를 내렸지만 어제시는 없었으니, 더욱 영광스러운 경우라고 하였다.³¹⁾ 그리고 영의정 徐命善을 불러 어제시에 대한 跋文을 쓰게 하였고 閣臣들에게 어제시에 廣讀하여 서명응에게 주도록 하였다. 이에 서명응은 은혜에 사례하는 『謝覽稿賜詩箋文』을 지어 올렸다. 당시에 서명응이 정조가 내린 어제시를 봉안하기 위해 자신의 집 정원에다 특별히 지은 건물이 바로 濟光亭이다.³²⁾

그러나 1785년(정조 9)에 이르러, 과거에 洪麟漢과 함께 정조의 즉위를 반대했던 洪啓能과 친분이 있었던 일로 인하여 李福徽의 탄핵을 받게 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蓉洲의 시골에 칩거한 채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1786년에는 정조가 서명응의 아들인 승지 徐滢修를 통해 들여온 『保晩齋叢書』를 을람하고 “우리 동방

29) 『保晩齋年譜』에 따르면 당시에 정조가 을람했던 본은 『保晩齋稿』 25권이였다.

30) 正祖, 「求見保晩齋稿吟寄一律」, 『弘齋全書』 권5, 한국문집총간 262집, 72면.
“雨過簾幙午風徐, 閒閱恬溪十軸書. 悟解多從三易邃, 典刑猶見四佳餘. 陰陽綜錯心頗爽, 雲水流行質本虛. 保晩堂中求草早, 文園當日較何如.”

31) 『承政院日記』 정조 6년 5월 4일.
上曰: “爲卿有御製七律, 卿其觀之.” 命膺進覽訖, 奏曰: “寶什璀璨, 恩數曠絕, 非但一門之榮耀, 實是前古之罕有, 臣不勝惶感無地矣.” 民始曰: “如此隆眷, 果是曠世之恩矣.” 上曰: “二直提學, 奉教書此, 必有與榮之喜, 而在卿亦不無潤筆之資矣.” 志儉曰: “臣果操心, 故不得善書矣.” 上曰: “卿欲造閣置之乎?” 命膺曰: “非私室所可奉安, 卽當建閣矣.” 上曰: “雷淵集雖有御製序文, 而無此七律, 在卿尤有榮焉矣.” 命膺曰: “臣之父子, 偏被隆恩, 無地圖報, 只切惶隕矣.” 上曰: “跋文領相當作之矣.” 이하 원문 생략.

32) 徐命膺, 『濟光亭記』, 『保晩齋集』 권8, 한국문집총간 233집, 233면.

수백 년 이래로 이와 같은 大作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감탄하기도 하였다.³³⁾ 『保晚齋叢書』는 서명응이 1783년에 시문고와는 별도로, 13종의 저서를 經, 史, 子, 集으로 분류하여 60권으로 엮은 類書의 일종으로, 서명응의 博學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저술이다.

1787년(정조 11) 12월 20일 서명응이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당일에 바로 하교를 내려 애도를 표한 뒤에 그의 유고를 속히 印行해 주라고 명하였다.

훌륭한 동생의 형이라서 달리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甯筵에서 뛰어난 학문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왕위에 오른 뒤, 맨 먼저 규장각 제학에 뽑혀 潤色의 공이 또한 가장 드러났다. 堂號를 保晚齋라고 바꾸어 준 것에서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나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賓客을 역임하였던 文衡에 대해서는 모두 유고를 인행해 주도록 하고 內帑庫의 物力으로 도와주는데, 더구나 이 봉조하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졸서한 봉조하 서명응의 아들을 복상이 끝나거든 복직하여 조용하고, 유고를 故 閣臣 黃景源의 예에 의거하여 속히 인행해 주라고 분부하라.³⁴⁾

서명응이 정조가 즉위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徐命善의 친형이라는 점과, 빈객으로서 정조를 보도했던 공로와 규장각 제학으로서 국가의 문헌을 편찬했던 공로를 차례로 언급한 뒤에, 앞서 같은 해 2월에 졸서한 황경원처럼 빈객을 역임한 문형은 유고를 인행해주는 전례를 적용하여 문집을 인행해 주도록 명을 내렸던 것이다.

이듬해 1789년(정조 13) 윤5월 19일에는 정조가 호조판서 서유린에게 『보만재집』과 『강한집』의 간행과 관련한 지시를 재차 내렸다.³⁵⁾ 이 지시에 따라 이듬해 1790년(정조 14) 5월경에 황경원의 『강한집』이 교서관에서 인행되었다. 하지만

33) 徐澄修, 『本生先考文靖公府君行狀』, 『明皇全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61집, 312면.
“澄修嘗以承旨侍上, 命入叢書覽之, 教曰: “我東數百年, 想無如此大篇.”

34) 『正祖實錄』 11년 12월 20일.

35) 『承政院日記』 정조 13년 윤5월 19일.

“江漢集·保晚齋集皆是曾經賓客文衡之人, 原集印出, 既有助給物力之命, 自本曹量助本家, 內閣弘文館, 白紙各一件印給, 可也.”

『보만재집』은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에 간행되지 못하였다. 당시 아들인 徐浩修와 손자 徐有槩가 閣臣으로서 정조 말년까지 정조의 측근에서 보좌하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보만재집』이 정치적인 이유로 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 듯하다. 서유구가 훗날 헌종 연간에 『보만재집』을 간행하면서 지은 『保晚齋集跋』에 의하면, 1787년에 서명응이 세상을 떠나자 정조가 유고의 간행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아들인 徐浩修와 徐滢修 형제가 서명응이 생전에 편차해 두었던 『保晚齋四集』³⁶⁾을 바탕으로 삼아 古今體詩 2권과 疏筭, 序, 記, 碑誌, 雜文 14권으로 이루어진 定稿本을 편차 교정해 두고 간행될 시기를 기다렸으나, 얼마 안 되어 時事가 변하고 집안이 환난을 겪는 바람에 간행되지 못한 채 책 상자 속에 보관한 지가 4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³⁷⁾ 『강한집』이 간행될 때까지도 『보만재집』은 간행을 위한 원고의 정리가 미쳐 완결되지 못한 듯하다. 이후에 서호수, 서형수 형제가 定稿本을 완성하여 정조의 명이 재차 내리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정조의 명이 다시 내리지 못하였던 까닭에 간행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⁸⁾

『保晚齋集』의 간행은 정조가 간행을 명한 지 50여 년이 지난 1838년(헌종 4)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한 뒤로 순조 연간인 1806년에 金達淳의 獄事와 관련되어 서형수가 楸子島로 유배되었다가 1824년에 유배지인 臨陂에서 생을 마쳤고, 손자인 서유구는 벼슬에서 삭직되어 초야에서 지내다

36) 『保晚齋四集』은 서명응이 1783년 『保晚齋叢書』를 완성한 뒤에 정조의 칭찬에 고무되어 편차한 시문집이다. 『保晚齋四集』이 內篇이 되고, 『保晚齋叢書』가 外篇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민섭, “徐命膺의 『保晚齋四集』의 편찬과정과 특징,” 한국실학연구 17호(2009), 83-131. 참조.

37) 徐有槩, 『保晚齋集跋』, 『楓石全集』 金華知非集 卷9, 한국문집총간 288집, 475면. “丁未計聞, 命奎章外閣印行文集. 吾諸父以壬寅徵稿之止於詩文, 就四集中, 選取古今體詩二卷疏筭序記碑誌雜文十四卷, 校對訂正, 以待鋅版, 無幾何而時移事往, 家恤世故, 如震風凌雨, 而是編之藏在箱篋, 倏已四十星霜矣.”

38) 위의 『保晚齋集跋』에서 徐浩修와 徐滢修가 편차한 定稿本을 ‘丁未編定本’이라 지칭하고, 徐有槩가 이것을 底本으로 印行하였다고 기록하였다. 丁未年이면 서명응이 별세한 1787년이다. 명칭만 놓고 보면 1787년에 곧바로 정고본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1790년에 간행된 『江漢集』과는 달리 재차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간행되지 못한 점에서 보면, 1787년에 정고본이 완성되어 이름을 붙인 것이기 보다는 그해에 편차를 시작하여 그러한 명칭을 붙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비로소 복직되었으므로 오랫동안 문집이 간행될 여건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1838년에 初刊된 『保晩齋集』은 서유구가 南公轍이 만든 활자³⁹⁾를 사용하여 인행한 16권 8책의 활자본이다. 卷首에 正祖가 1782년 『保晩齋稿』를 올람한 뒤에 閣臣 鄭志儉에게 쓰게 하여 내린 御製詩와 御製詩에 대한 李福源의 序가 실려 있는데, “奎章之寶”·“萬機”·“餘事圖籍” 등의 인장이 판각되어 있다. 卷尾에는 1838년에 서유구가 지은 跋과 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서지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1838년간 『보만재집』의 서지 사항

板種	活字本(聚珍字)
卷冊	16卷 8冊
行字	10行 20字
半郭	22.4×16.0(cm)
魚尾	上黑魚尾

2.4 蔡濟恭의 『樊巖集』

채제공(1720-1799)은 자가 伯規, 호가 樊巖, 시호가 文肅, 본관은 平康이다. 1743년(영조 19)에 문과에 합격한 뒤로 영조의 신임을 받아 요직에 올랐고, 정조가 세손이던 1772년에는 賓客을 역임하였으며,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규장각제학에 제수되었다. 1788년(정조 12)에 특지로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1790년 이후 3년 동안 獨相 좌의정으로서 국정을 담당하다가 1793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재상에 임명된 뒤로 顯隆園 移建, 辛亥通共 실시, 吏曹銓郎 通淸權 혁파, 水原城 건설 등의 사업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39) 조선 후기의 문신 南公轍이 개인적으로 만든 활자로, ‘聚珍字’라고 불린다. 『高麗名臣傳』, 『耳溪集』, 『歸恩堂集』 등의 인쇄에 사용되었다(천혜봉,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사』(서울: 범우, 2012), 344).

時派와 僻派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왕권 강화를 모색하던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하고 抄啓文臣 제도를 실시하여 親衛 세력을 구축하였고, 思悼世子의 보호에 앞장섰던 남인 체제공을 등용하여 노론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삼았다. 평소 체제공을 깊이 신뢰하고 있던 정조는 우의정으로 발탁하면서 체제공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을 해명하는 글을 특별히 지어 내리기도 하였는데,⁴⁰⁾ 이는 전에 없던 과격적인 조치였다.

체제공에 대한 정조의 신뢰는 세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조는 세손인 정조에게 체제공이 사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적을 높이 평가하여 “나와 너희 부자 사이를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체제공 덕분이다. 그는 나에게서 純臣이요, 너에게는 忠臣이다.”라고까지 하였으며,⁴¹⁾ 1771년(영조 47)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처분을 후회하면서 ‘金臚’의 글을 남몰래 지어 체제공에게만 보여준 뒤에 眞聖王后의 神主 밑에 보관하였다가 훗날 정조가 즉위한 뒤에 전하도록 하였다. 사도세자의 伸冤을 위해 평생토록 노력을 경주하던 정조의 입장에서는 체제공이 보여주었던 사도세자에 대한 의리는 매우 감동적인 것이었으며, 체제공 역시 정조의 의도에 부응하여 충심을 다해 보좌했던 것이다.

한편 그는 畿湖 南人의 영수로서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던 남인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嶺南 南人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들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남 남인을 우대하고 발탁하던 정조의 의중에 부합하여 체제공은 많은 영남의 인재들을 정조에게 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 先賢에 대한 贈職, 贈諡, 伸冤, 문집의 간행, 狀礪 등의 청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⁴²⁾

1791년 3월 정조는 獨相으로 있던 좌의정 체제공에게 詩文稿를 들여오게 하여 을람하고는 시를 지어 내렸다.⁴³⁾ 다음의 글은 어제시를 하사받은 체제공이 그

40) 『正祖實錄』 12年 2月 15日.

41) 丁範祖, 『領議政諡文肅蔡公神道碑銘』, 『海左集』, 한국문집총간 239집, 485면.

上諭曰: “先大王嘗執手而詔曰, 能周全予與爾父子間者, 蔡某是已。蔡某, 誠予之純臣, 爾之忠臣。”

42) 김명자,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194-208.

영광을 부모의 사당에 고한 글이다.

聖上 15년 신해 3월에 상께서 賤臣이 지어 베껴든 詩文을 들여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애초에 小子가 詩 6冊과 文 11冊을 繕寫하여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었고, 미처 선사하지 못한 詩文도 서너 책 있었습니다. ……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감히 없다고 아뢰지 못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봉헌하였습니다. 열흘 쯤 지난 뒤에 大內로부터 도로 내려주시면서 친히 지으신 七言四韻의 律詩 한 수를 御筆로 쓰셨는데, 하나는 花箋紙에 써서 家藏토록 하셨고, 하나는 木板에 새기고 金으로 메꾸어 벽에다 걸게 하셨고, 하나는 葉紙에 模印하여 훗날 문집을 간행할 때에 卷首에 실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시를 세 本로 만들어 붉은 상자에 담고 붉은 보자기에 싸서 규장각의 閣吏로 하여금 받들어 진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실로 典籍에서 보지 못한 융숭하고도 특별한 은혜입니다.⁴⁴⁾

채제공은 평소에 자신의 시문을 편차하여 정리해 두고 있었다. 당시 이미 72세였으니, 그때까지 저술한 시문의 분량이 적지 않았다. 당시 올린 시문집은 총 20책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詩稿가 6책, 文稿가 11책이었고, 그밖에 未定稿가 서너 책이었다. 정조가 생존해 있는 신료의 시문고를 들려오게 하여 올람한 일은 앞서 서명응의 전례도 있었으나, 흔치 않은 일이었다. 시문을 올람한 정조는 이번에도 서명응의 경우처럼 시를 지어 내려주었는데, 번암에게는 한 편의 어제 시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써서 하사하였으니, 서명응의 경우보다 더욱 영예로운 조치였다. 채제공이 집안에서 대대손손 家寶로 전할 수 있는 家藏本과, 금으로 글자를 장식한 懸板과, 훗날 문집의 간행 때 수록할 수 있도록 鄣印紙에 淨書한 本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격적인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필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채제공에 대한 노론 벽파의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제공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재차 천명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稗官雜記에 경도되었던 문사들의 불순한 문체를 순정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정조가 자신의 총애하는 채제공의 시문을 직접 읽고 표창함으로써 모범적인 글쓰기의 모범으로 제시

43) 正祖, 『題左議政蔡濟恭樊巖詩文稿』, 『弘齋全書』 권6, 한국문집총간 262집, 83면.

“傑氣驅來筆力勌, 七分如對畫中卿。奔騰處有浪濤勢, 慷慨時多燕趙聲。北極風雲昭晚契, 滄江鷗鷺屬前盟。湖洲以後模楷在, 更喜東山詠洛生。”

44) 蔡濟恭, 『考妣廟告文』,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6집, 187면.

하러던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정조는 번암의 시문을 을람한 이후로도 번암의 문집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797년(정조 21) 2월 연석에서 정조가 자신이 평소 채제공의 시에 次韻한 어제시와 채제공이 賡韻한 어제시를 모두 『번암집』이 간행될 때에 『번암집』에 실도록 채제공에게 언급한 일이 있다.⁴⁶⁾ 또한 같은 해 12월에 『춘추』를 새로 인행한 공로를 치하하여 내린 賞典을 채제공이 筵席에서 사양하자, 정조가 지금 사양하지 말고 연석에서 물러난 뒤에 사양하는 筭子を 올려서 훗날 그 차자가 문집에 실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⁴⁷⁾ 정조조차 자신의 시가 『번암집』에 수록되기를 원하였으며, 번암이 좋은 문장을 많이 남겨 훌륭한 글이 문집에 많이 실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니, 정조의 채제공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의 문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1799년 1월 18일에 번암이 세상을 떠나자, 2월에 文肅의 시호가 내렸고, 3월에 龍仁에 안장되었다. 장례를 치르던 날에 정조는 60句 500여 字에 이르는 장편의 誄文을 지어 각신을 보내 靈前에서 읽게 하였다.⁴⁸⁾ 『번암집』의 卷首에 수록되어

45) 정조가 『樊巖集』을 을람하기 한 달 전인 1791년 2월에 정조가 채제공과 風俗과 선비들의 文體를 걱정하며 바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의 대화가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2월 12일 기사에 보인다.

46)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2월 1일.

濟恭曰：“臣之蕪句，每荷雲章之俯和，臣不勝且榮且感，殿下於性理工夫，聖學高明，則臣固已知之，而傍及詞章，卓越千古，尤萬萬欽誦矣。”上曰：“卿言過矣。予則御製詩，未嘗一一收輯，而卿之文集，必當刊行，御製之次卿韻者，卿詩之賡御製處，並刊御詩，如凡他文集之附原韻附次韻之例好矣。”濟恭曰：“伏承聖教，萬萬榮感，而第御詩之載於私稿，甚爲未安，不敢承命矣。”上曰：“此則不然，依下教載錄，有何不可耶？”濟恭曰：“聖教既如是申複，謹當以今日下教，識錄於臣稿中最初賡韻之載御詩處，使後人知有聖教，而亦可見微臣際遇之隆矣。”上曰：“好矣。”

47)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12월 20일.

濟恭進前曰：“臣等之錄名，是書已極與榮之喜，而文豹之錫，係是重典，臣實不敢受罔功之賞矣。”上曰：“卿何過讓？筵退後不妨以筭子陳懇。然則卿文集中，將以辭春秋賞典筭子入錄，亦甚好矣。”濟恭曰：“臣之賤稿，何足稱道，而聖教每及於此，尤不勝惶感之至矣。”

48) 『弘齋全書』에는 「文肅公蔡濟恭葬日致祭文」으로, 『번암집』에는 「賜祭誄文」으로 실려 있다. 그 가운데 “不與人亡，滿架牙軸。徵付劄副，將壽其傳。”라고 한 구절이 문집의 명간을 언급한 부분이다.

있는 御製誄文의 뒤에는 정조가 뇌문의 구절마다 직접 주석을 달아 의미를 상세하게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이 뇌문에서 정조는 체제공이 평생 동안 三大義理⁴⁹⁾에 의거하여 군주를 잘 보좌한 일과, 훌륭한 성품과 문장, 조정에서 세웠던 공로, 임금의 지속적인 신뢰 등을 차례로 나열한 뒤에 말미에 문집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遺稿를 궁중으로 들여와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할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체제공의 장례가 끝난 뒤에 자제들과 문인들은 神道碑의 찬술을 준비하고, 정조의 명에 따라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유고를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변암과 가까운 동료였던 丁範祖가 1799년경에 변암의 神道碑를 완성하였고, 그해 가을에는 변암의 정치적인 제자인 李家煥과 丁若鏞이 유고를 교정하였다.⁵⁰⁾

『변암집』의 원고의 교정이 완료되자 정조는 1800년(정조 24) 4월에 그 원고를 올람하고 凡例를 직접 작성하여 편차의 문제점과 지침을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疏筭의 말미에 붙여 한 글자 낮추어 편집한 備忘記·傳教는 별도로 年譜나 日錄으로 만들어 부록하고, 어투가 부적절한 말은 潤色하도록 하였으며, 書啓와 疏筭를 별도의 名目으로 편집하게 하였으며, 부적절한 제목을 고쳐 제시하는 등 각 권마다 드러난 편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였다. 그리고 傳教, 備忘記, 筵教, 御札을 하나의 편으로 만들어 卷首로 삼고, 君臣 간에 酬唱한 시를 모아 ‘廣和錄’으로 편집하게 하였으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는 시를 모아 ‘榮恩錄’으로 편집하게 하였으며, 詩文이나 그 附錄 등에 보이는 전후의 恩典은 따로 모아 別編으로 편집하게 하였으며, 1780년부터 1788년 사이의 疏筭에 附錄된 것은 ‘伸辨錄’으로 편집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편집의 틀을 제시하였다. 정조가 범례를 통해 제시한 편집 방침은 대체로 변암이 自編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정조와 변암의 특별한 관계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한 편찬 방식이었다. 정조는 이 범례를 南人 신료인 李鼎運, 崔獻重, 韓致應에게

49) 정조가 붙인 주석에는 이를 ‘辛壬義理’, ‘戊申義理’, ‘某年義理’라고 하였는데, 신임의리는 英祖 즉위의 정당성, 무신의리는 戊申亂과 乙亥獄事를 다스린 정당성, 某年義理는 곧 壬午義理로서 思悼世子 伸冤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50) 丁若鏞, 『貞軒墓誌銘』, 『與猶堂全書』 詩文集卷15, 한국문집총간 281집, 325면.
“秋, 鏞與公校樊翁遺集。厥明年夏, 正宗大王升遐, 朝局一變, 黨人得志。”

내려 검토하게 하였다. 그들은 교정에 참여했었던 이가환, 정약용 등과 함께 이를 검토하여 보고하였는데, 凡例에 따라 遺稿를 再編하되 別編과 伸辨錄을 따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아뢰었다. 현재 전하는 『번암집』의 체제는 어정범례에 의거하여 재편된 것이다.

『번암집』의 간행에는 영남 남인들이 처음부터 깊이 간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安東의 선비 金道行의 1799년 편지에 “어제 三溪書院의 선비들이 廬江書院에 보낸 서찰을 보고서 『번암집』 刊役을 廣興寺에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고을의 사람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다해 本家が 부탁한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⁵¹⁾라고 한 기록이 보이고,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안동의 선비 金鎭東(?-1800)의 편지에 “樊翁의 遺集을 간행하는 일이 과연 우리 고을에서 시작된다면 우리들이 감히 힘을 다해 從事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校勘을 거치지 않고 지레 간행을 하게 될까 염려된다. 蔡棘人(번암의 아들 蔡弘遠을 가리킴)이 한번 오려고 한다면, 그 유집을 가지고 某某人에게 먼저 교감해 줄 것을 청하기를 湖上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좋을 듯하다.”⁵²⁾라고 한 기록도 보인다. 남아 있는 자료가 적어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앞의 편지 내용으로 보면, 정조가 『번암집』의 간행을 천명하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남인들은 기호 남인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번암집』의 간행을 自任하고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평소 영남 남인들을 발탁하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체제공은 영남 남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며 후원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번암집』의 간행은 영남 남인의 입장에서는 왕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번암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더구나 영남 남인들을 위해 번암이 지은 狀礪과 序跋, 記文 등이 『번암집』에 다수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간행은 더욱 의미가 깊었다.

51) 金道行, 『雨臯集』 권2, 「答李稚春己未」.

“昨見三溪士林抵廬院書, 知樊巖集刊役設施於廣興寺. 未知吾鄉士林其能盡心此事, 無負本家付托之意否乎?”

52) 金鎭東, 『素巖集』 권2, 「與翰之翰東」.

“樊翁遺集刊役, 果始於吾鄉, 則在吾輩敢不竭力從事. 但念不曾校勘, 遽爾入梓, 蔡棘人果欲一來, 奉其遺集, 請某某人先加校勘如湖上之爲, 則似好矣.”

여기서 湖上에서 했던 일은 金鎭東이 1799년 鄭惟一의 문집을 교정하여 간행했던 일을 가리킨다.

하지만 1800년 6월에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변암집』의 간행 논의가 중지되었고, 나이 어린 純祖가 즉위하고 僻派 老論 출신인 貞純王后가 수렴정정하자, 時派 南人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로 인해 대다수가 기호 남인이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가환은 옥사하였고 정약용은 유배되었으며, 채제공은 생전에 西學을 비호하였다는 죄목으로 追奪되었으므로 『변암집』의 간행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변암집』이 간행된 것은 1824년에 이르러서이다. 1823년 4월 洪時濟의 상소를 계기로 채제공이 復權되자, 애초에 정조의 명을 받들어 『변암집』을 간행하려고 했던 영남 남인들이 『변암집』 간행 논의를 재개하였다. 이들은 7월에 試士壇 重建을 위해 모인 陶山書院의 道會에서 『변암집』의 간행을 발의하고, 1824년 4월에 안동 鳳停寺에 刊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간행 작업에 착수하였다. 義城金氏를 중심으로 한 虎溪書院 측과 豊山柳氏를 중심으로 한 屏山書院 측 사이에 간행비용과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호계서원 측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사람들의 노력으로 6월에 板刻이 완성을 볼 수 있었다.⁵³⁾

卷首의 첫머리에는 正祖가 1791년 변암의 詩文稿를 을람한 뒤에 직접 써서 하사한 御製詩가 실려 있는데, “弘齋”와 “萬幾之暇”라는 인장도 함께 판각되어 있다. 그 뒤에는 御定凡例와 이를 검토하여 李鼎運 등이 올린 附奏가 실려 있는데, 이 어정범례와 부주는 1824년 1월에 洪時濟가 쓴 글씨로 판각되어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卷首上과 卷首下는 어제 범례에 따라 정조가 변암에게 내린 絲綸과 御札만을 별도로 모은 것이다. 그 서지 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1824년간 『변암집』의 서지 사항

板種	木板本
卷冊	59卷 27冊
行字	10行 20字
半郭	21.6×17.2(cm)
魚尾	上黑魚尾

53) 『刊所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3. 사례 분석

3.1 命刊의 배경 분석

정조가 간행을 명한 당대 신료의 문집 네 종을 중심으로 命刊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았다. 네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두 정조가 世孫 시절에 賓客에 임명되어 정조를 輔導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유용은 정조가 세 살이던 1754년(영조 30)에 輔養官에 발탁되어 정조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元孫師傅에 임명되었으며, 황경원은 정조가 15세이던 1766년(영조 42)에 世孫右副賓客이 되어 정조를 輔導하였으며, 서명응과 채제공은 1772년(영조 48)에 빈객에 제수되어 弱冠의 정조를 가르쳤다. 특히 남유용과 황경원은 정조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빈객을 맡아 정조의 가치관과 학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조는 남유용의 『뇌연집』을 간행해 주라는 명을 내린 계기로 빈객을 지내고 문형을 역임한 신하의 유고를 간행해 주는 전례를 세웠다.⁵⁴⁾ 이러한 전례에 따라 간행을 명한 것이 바로 황경원의 『강한집』과 서명응의 『보만재집』이다. 남유용은 1758년(영조 34), 황경원은 1766년(영조 42), 서명응은 1771년(영조 47)에 각각 문형을 역임하였다. 문형은 館閣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표할 만한 문장가를 임명하므로 그들의 글은 한 시대 문장의 典範이 된다. 稗官雜記에 오염된 文士들의 문체를 순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정조에게 그들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문장의 전형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한편 채제공은 문형을 역임하지 않았으나, 御製詩와 御定凡例 등을 통해 정조가 그의 문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⁵⁵⁾ 빈객을 지내고 문형을 역임하였거나, 빈객

54) 『正祖實錄』 11년 12월 20일.

“隱卒之典，自可按例舉行，而文衡之已經賓客者，皆令印行遺稿，以內帑物力助給，況此奉朝賀乎？卒奉朝賀徐命膺子，待闕服復職調用，遺稿，依故重臣黃景源例，斯速印給事分付。”

55) 正祖, 『御定凡例』.

“文不如詩，詩不如人，人之云遐，何惜如之？其文，小者蒼勁，大者鬱嶺，皆能一氣呵成，不用鉛粉脂蠟手段，則其詩與其人，居可知矣。”

을 지내고 문장이 뛰어난 신료의 문집을 간행해 주도록 명한 것은 순정한 고문의 장려를 통해 순정한 문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정조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서명응의 경우에는 빈객과 문형을 지냈으나, 정조가 그의 문장에 대해 칭찬한 글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글은 정조가 추구하였던 정통의 순정한 고문과는 다른 문체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國朝寶鑑』을 편찬할 때에 정조가 “서명응이 지은 글은 필시 두 重臣과 문체가 현격히 달라 합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니 그에게는 校正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⁵⁶⁾라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세 사람에게 비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정조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은 서명응의 박학한 학문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로서, 정조를 도와 국가적인 편찬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서명응이 정조의 지우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학문적인 역량 이외에도 동생인 徐命善이 정조의 즉위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체제공은 네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정승의 지위에 올라 영의정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영조 때 思悼世子的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정조의 신임을 얻기 시작하였고, 뛰어난 經世의 자질을 발휘하여 정조가 추진하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보좌하였다. 顯隆園 移建, 辛亥通共 실시, 吏曹銓郎 通淸權 혁파, 水原城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은 모두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정조 정치의 핵심인 ‘壬午義理’의 정립에 일등공신이었다.⁵⁷⁾ 정조가 변암의 부고를 듣고 내린 “이 대신에 대해서 나는 실로 남들은 알지 못하고 혼자만이 아는 깊은契습이 있다. 이 대신은 불세출의 인물이다.”⁵⁸⁾라는 하교는 정조의 체제공에 대한 신뢰와 친밀성을 잘 드러낸 말이다. 이러한 체제공과 정조와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변암집』이다. 정조는 체제공의 생전에 훗날 『변암집』에 자신의 시를 함께

56) 『承政院日記』 정조 5년 7월 27일.

“徐命膺撰修文字，必與兩重臣，文體顯異，似不可合付矣。然則使之校正爲好。”

57) 최성환, “변암 체제공의 정치 역정과 정치 의리,” 『변암 체제공의 생애와 활동』 (2013), 6-37.

58) 正祖, 『判府事蔡濟恭隱卒教』, 『弘齋全書』 권36, 263집, 29면.

“予於此大臣，實有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奧契。此大臣，間起人物也。”

실어 편차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고, 채제공의 사후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편집의 방향을 상세히 제시한 범례를 지어 마치 자신의 문집을 편차하는 것과 다름없는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표 5> 정조가 문집을 명간한 당대 신료들의 관력과 특징

구분	賓客	文衡	閣臣	文章	學術	經世
남유용	○	○		○		
황경원	○	○	○	○		
서명응	○	○	○		○	
채제공	○		○	○		○

3.2 命刊의 경과 분석

정조가 편집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던 이전 시대 인물의 문집, 예를 들면 梁誠之의 『訥齋集』, 朴闇의 『增訂挹翠軒集』, 朴祥의 『訥齋集』, 車天輅의 『五山集』, 李舜臣의 『李忠武公全書』 등은 기존에 간행된 본이나 고본을 가지고 정조가 직접 再編하거나 奎章閣의 閣臣들로 하여금 편집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집들은 대부분 패관잡기에 물든 文士들의 문장을 순정하게 되돌리거나, 人倫綱常의 도리를 고취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편찬 과정에서 그러한 의도가 명확하게 구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당대 신료들의 문집은 앞의 문집처럼 명확한 목적을 지닌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자의 후손과 문인들이 유고의 편찬 및 교정을 주로 담당하였고, 규장각은 간행에 들어가기 직전에 간단한 교정과 원고의 출납 정도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을 간행해주라는 정조의 명이 내렸을 때, 네 문집은 모두 저자의 自編稿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후손과 문인들은 가장되어 있던 自編稿를 바탕으로 간행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거나 교정하였다. 1778년 9월에 간행의 명이 내린 『뇌연집』의 경우, 남유용의 문인인 兪漢雋이 1780년경 교정을 수행한 기록이 있고, 1781년에

는 규장각에서 교정이 완료된 사실을 보고한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1781년 당시에 국가문헌인 『국조보감』의 편찬이 시작된 시점이었으므로 간행이 늦추어져 1783년 5월에 이르러 간행되었다.

1787년 2월경에 간행의 명이 내린 『강한집』의 경우 1788년에 정조가 저자의 從弟이자 門人인 좌승지 黃昇源에게 『강한집』이 간행될 시기를 묻자 황승원이 “騰出한 原稿에 오류가 많은데, 아직 미처 考準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뢰는 기록으로 볼 때, 당시에 稿本의 傳寫와 校正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89년 5월에 이르러서는 정조가 奎章閣 提學인 金鍾秀와 『강한집』의 排淸文字에 대해 논의하였고, 윤5월에는 호조판서 徐有隣에게 『강한집』의 인쇄에 쓰일 종이를 지급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볼 때 당시에는 교정이 완료되어 인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한집』이 간행된 것은 1790년(정조 14) 5월이다. 『뇌연집』은 『국조보감』의 편찬 시기와 겹쳐 간행이 지체된 기간을 제하면 간행의 명이 내린지 3년 만에 간행된 셈이고, 『강한집』도 3년 만에 간행되었다.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정조의 명이 내렸으나, 정조 연간에는 간행되지 못하고 훗날 사적인 형태로 간행되었다. 『보만재집』의 경우 1787년(정조 11) 12월에 간행의 명이 내리자, 아들인 徐浩修와 徐澄修가 서명웅의 자편고인 『保晚齋四集』을 바탕으로 再編에 착수하였다. 그런 가운데 1789년 윤5월에 정조로부터 『보만재집』과 『강한집』의 간행 지시가 재차 내렸고, 이에 따라 1790년 5월에 『강한집』이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보만재집』만 간행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들인 서형수와 손자 서유구가 각신으로 정조 말년까지 측근에서 보필하였으므로 정조 연간에 간행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닌 듯하다. 1790년 『강한집』이 간행이 완료되고 『보만재집』이 이어 간행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까지도 원고의 재편과 교정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정조의 뇌리에서 잊혔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만재집』은 정조가 승하하고 純祖가 즉위한 뒤로 서명웅의 후손들이 정치적 시련을 겪는 바람에 명간 이후 50년이 지난 1838년에 이르러서야 徐有集에 의해 비로소 간행되었다.

『번암집』의 경우 정조는 체제공의 생전부터 그의 시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1799년 체제공이 세상을 떠나자 내린 誄文을 통해 『번암집』의 命刊을 천명하자, 체제공의 정치적 제자라고 할 수 있는 李家煥과 丁若鏞이 그해 가을에 체제공의 유고를 교정하여 정조의 徵稿에 대비하였다. 정조는 1800년(정조 24) 4월에 교정이 완료된 유고를 올람하고서 편차의 문제점과 지침을 제시한 凡例를 작성하여 본가의 후손에게 묻고, 남인 신료들에게 범례의 검토를 명한 뒤에 범례에 따라 원고를 재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해 6월에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번암집』의 간행은 중지되었으며, 순조가 즉위한 뒤에는 신유박해로 기호 남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체제공은 追奪되어 간행은 더욱 요원해졌다. 1823년 체제공이 伸冤되자, 정조가 『번암집』의 간행의 명을 내렸던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간행을 담당하고 나섰던 영남 남인들은 『번암집』 간행 논의를 다시 발의하여 1824년 6월에 安東 鳳停寺에서 간행을 완료하였다.

네 문집 가운데 『뇌연집』은 御製序는 있고 御製詩는 없다.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御製序는 없고 御製詩는 있다. 『강한집』은 두 가지 모두 실려 있지 않다. 이것은 『강한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강한집』에 淸나라를 배척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혹시라도 청나라에 전파되어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까 걱정한 바 있다. 『뇌연집』이 간행되기 직전에 정조가 서문을 지어 권수에 수록하도록 하였던 전례에 따른다면, 『강한집』도 당연히 御製序가 수록되어야 했다. 하지만 御製序가 수록될 경우 야기될 외교문제를 염려하여 정조는 서문을 지어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가 저자의 사후에 올람했던 『뇌연집』과 『강한집』과는 달리,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저자의 생전에 정조가 시문고를 올람하고 御製詩를 하사하였다. 이는 매우 특별하고도 영예로운 일이었으므로 정조는 御製詩를 하사하면서 훗날 卷首에 어제시를 수록할 것을 기약하였다. 하지만 두 문집은 정조의 생전에 간행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御製序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훗날 간행될 때에는 御製詩만 수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뇌연집』이 간행될 때 정조와 閣臣 徐鼎修와의 대화를 통해 本家が 사적인

용도로 印出해 가는 私件은 본가가 경비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간행이 시작될 무렵 서정수가 南有容의 본가가 가난하여 널리 배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정조에게 보고하였고, 간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사건으로 찍어가는 분량이 불과 40, 50件 정도라고 보고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뇌연집』을 이어 간행의 명이 내린 『강한집』과 『보만재집』의 경우에는 정조가 戶曹에 內閣과 弘文館에 들일 公件의 印出을 지시하면서 본가가 부담할 사건의 인출 비용을 지원하라는 명을 내렸다. 처음에는 『뇌연집』의 경우처럼 私件의 인출은 본가가 비용을 부담하였다가, 뒤에 『강한집』이 간행될 때에 이르러서는 사건에 대한 것도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한집』의 경우 간행할 때에 인출할 公件의 종이, 소요처, 수량에 대해 정조가 지시한 備忘記가 남아 있어 당시 命刊한 문집의 인출 수량을 짐작할 수 있다. 총 23件이 공건으로 인출되었는데, 가장 고급 종이로 추정되는 別冊紙가 3건, 그 다음 고급 종이인 白綿紙가 5건, 일반 종이로 추정되는 白紙가 15건이다. 別冊紙는 內入(1건)과 西庫(2건)에 보관할 것이고, 白綿紙는 外奎章閣(1건), 西庫(1건), 太白山城(1건), 五臺山城(1건), 赤裳山城(1건)에 보관할 것이고, 白紙는 內入(9건), 春秋館(1건), 校書館(1건), 西庫(3건), 鼎足山城(1건)에 보관할 것이다.

정조가 명간한 당대 신료 문집의 경과를 표로 개괄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정조가 명간한 당대 신료 문집의 경과

구분	간행을 명한 시기	실제 간행된 시기	어제서	어제시	분량	판종	간행주체
뇌연집	1778년 (정조 2)	1783년 (정조 7)	○	×	30권 15책	활자 (韓構字)	국가
강한집	1787년 (정조 11)	1790년 (정조 14)	×	×	32권 15책	활자 (芸閣印書體字)	국가
보만재집	1787년 (정조 11)	1838년 (헌종 4)	×	○	16권 8책	활자 (聚珍字)	徐有築 (손자)
번암집	1799년 (정조 23)	1824년 (순조 24)	×	○	59권 27책	목판	嶺南南人

4. 결 론

지금까지 정조가 간행을 명하였던 당대 신료 문집 네 종의 명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정조는 자신이 왼손으로 있을 때 빈객으로서 자신을 가르쳤던 신료 가운데 문형을 역임하였으면서 문장과 학술이 뛰어나거나, 자신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대한 공적을 세운 신료의 문집을 간행해주도록 명을 내렸다. 정조가 빈객을 지내고 문형을 역임한 신료의 문집을 간행해주도록 명한 전통은 남유용의 『뇌연집』에서부터 시작되어 황경원의 『강한집』, 서명응의 『보만재집』으로 이어졌다.

둘째, 남유용과 황경원이 추구한 문장은 둔후하고 고아한 古文으로서, 정조의 ‘文體反正’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문장이 수록된 문집에 대한 命刊도 그러한 정조의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명응의 경우에는 고문과는 다른 분위기의 문장을 추구하였으나 經學에 바탕을 두고 博學을 추구한 그의 학술은, 규장각을 설치하여 다양한 서적을 편찬했던 정조의 학술 정책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그가 빈객과 문형을 지낸 이력 이외에 동생인 徐命善이 정조의 즉위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점도 명간에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체제공은 문형을 역임하지는 않았으나, 思悼世子の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정조의 신임을 얻고 영의정에 올라 정조가 추진하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보좌하였다. 또한 정조 정치의 핵심인 ‘壬午義理’의 정립에 큰 공을 세워 정조와는 남다른 契合이 있었다. 체제공의 『번암집』은 정조와 체제공이 함께 추진했던 정책과 군신간의 친밀한 관계가 녹아들어 있는 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조는 『번암집』을 자신의 문집과 다름없는 것처럼 여기고 상세한 편지의 방향을 제시한 범례를 지어 내렸던 것이다.

셋째, 네 문집 가운데 정조 생전에 명간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된 문집은 『뇌연집』과 『강한집』 뿐이고, 『보만재집』과 『번암집』은 정조 사후에 사적인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뇌연집』과 『강한집』은 간행의 명이 내린 뒤에 간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편집과 교정에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보만재집』과 『변암집』은 모두 정조 사후에 저자의 후손이나 본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하다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간행되었다.

넷째, 『뇌연집』과 『강한집』은 저자의 사후에 정조가 遺稿를 들여오게 하여 을람하고 간행하도록 명한 경우이고, 『보만재집』과 『변암집』은 저자의 생전에 시문고를 들여오게 하여 을람한 뒤에 어제시를 내리고, 사후에 간행해주도록 명한 경우다. 명간한 문집의 경우 『뇌연집』처럼 간행 직전에 어제서를 지어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排淸文字가 다수 수록된 『강한집』은 중국에 유입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어제서가 수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만재집』과 『변암집』은 정조 생전에 간행되지 못한 까닭에 어제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어제시만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명간한 문집을 인행할 때 국가에서 공적으로 찍어내는 公件과 저자의 분가에서 사적으로 찍어가는 私件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연집』을 印出할 때 본가가 가난하여 사건을 40, 50件만 찍어간 사례를 볼 때, 私件으로 찍어가는 수량은 보통의 경우 최소 50件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집』 이후에는 私件을 찍어가는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公件의 수량은 『강한집』을 인출할 때 정조가 내린 備忘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한집』의 공건은 총 23건이 인출되었는데, 가장 고급 종이로 추정되는 別冊紙가 3건, 그 다음 고급 종이인 白綿紙가 5건, 일반 종이로 추정되는 白紙가 15건이다. 別冊紙는 內入(1건)과 西庫(2건)에 보관할 것이고, 白綿紙는 外奎章閣(1건), 西庫(1건), 太白山城(1건), 五臺山城(1건), 赤裳山城(1건)에 보관할 것이고, 白紙는 內入(9건), 春秋館(1건), 校書館(1건), 西庫(3건), 鼎足山城(1건)에 보관할 것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刊所日記』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金道行. 『雨臯集』. 韓國文集叢刊 續91輯.

金鎮東. 『素巖集』. 韓國文集叢刊 續89輯.

南有容. 『雷淵集』. 韓國文集叢刊 217-218輯.

徐命膺. 『保晚齋集』. 韓國文集叢刊 233輯.

徐澄修. 『明臯全集』. 韓國文集叢刊 261輯.

俞漢雋. 『自著』. 韓國文集叢刊 249輯.

丁範祖. 『海左集』. 韓國文集叢刊 239-240輯.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286輯.

正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267輯.

蔡濟恭. 『樊巖集』. 韓國文集叢刊 235-236輯.

黃景源. 『江漢集』. 韓國文集叢刊 224-225輯.

[단행본 및 논문]

천혜봉.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사』. 서울: 범우, 2012.

강혜선. “正祖의 문예진흥과 시문선집의 편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집(1999). 411-432.

강혜선. “正祖의 詩文集 編纂樣相 研究.” 『장서각』 3집(2000. 7). 113-137.

김문식. “徐命膺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정신문화연구』 제22권(1999). 151-184.

김문식. “『樊巖集』 간행의 경과.” 『문헌과 해석』 26호(2004. 3). 181-194.

- 백승호. “正祖의 臣僚 文集 간행과 그 정치적 의미: 『挹翠軒遺稿』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43집(2014. 6). 117-145.
- 백진우. “英祖朝 執權 老論系 문인의 自己檢閱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2권(2008). 283-311.
- 신승운. “成完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집(1995). 301-390.
- 심경호. “조선 문집 간행의 경위와 편찬 체제에 관한 일고찰: 鄭道傳 『三峯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2집(2014. 2). 119-152.
- 안대회. “정조의 문예정책.” 『장서각』 3집(2000). 87-111.
- 오용섭. “『三峰集』의 간행과 편성.” 『서지학연구』 48집(2011. 6). 229-253.
- 이종묵. “梁誠之의 서적 정책과 『訥齋集』의 간행 경위.” 『한국문학논총』 26집(2000. 6). 281-305.
- 임노직. “『樊巖集』 판각 경위와 문화사적 의미.” 『한국사상의 재조명』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2). 503-531.
- 정선영. “백면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집(2008. 12). 427-451.
- 최성환. “번암 체제공의 정치 역정과 정치 의리.” 『번암 체제공의 생애와 활동』 (2013). 6-37.
- 한민섭. “徐命膺의 『保晚齋四集』의 편찬과정과 특징.” 『한국실학연구』 17권(2009). 83-131.
-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